

맞벌이 부부가계의 은퇴계획 :

남편과 부인의 은퇴예상연령 및 관련변인을 중심으로*

Retirement Planning of Two earner households :

Expected Age of Retirement of husbands and wives and Related Variables

제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 수 김 혜 연**

Dept. of Home Management, Cheju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Hye-Yeon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모델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how the expected age of retirement of the couple, husband and wife, individually, the difference between the expected age of retirement of the husband and that of the wife, and to analyze contributing variables. The sample in this study numbered 517, of which 229 were husbands and 288 were wives.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divided into three factors including personal, financial, and work related variab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Among two earner households, both husbands and wives expected the husband's age of retirement to be higher than of the wife. The difference between the husband's expected age of retirement and the wife's expected age of retirement was five years, on average. For the husband, personal, financial, and work related variables had effects on his expected age of retirement. However, for the wife it was only the perception of future work life and expected age of retirement of the partner which had very significant effects statistically. The variables affect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expected age of retirement of the husband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수 국내교류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주저자, 교신저자: 김혜연(morning@cheju.ac.kr)

and that of the wife included the personal variables as well as interaction of the couple related variables.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of all, the planning of retirement among two earner households needs to be focused on the couple rather than on the individual.

Key Words : 맞벌이 부부가계(two earner household), 은퇴예상연령(expected age of retirement)

I. 서론

은퇴(retirement)란 마음의 상태, 생활방식, 경제적 또는 사회적 조건, 더 나아가 그것들의 복합체(Mitchell, 1972)일 수 있어 그 중 어떤 의미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개념 및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Donahue 등(1960, Schultz, 1995에서 재인용)이 일찍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은퇴란 현대 산업사회의 한 현상으로 전통사회에서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고려되지 않던 현상이었다. 우리나라 역시 산업사회로 들어서 경제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던 6,70년대만 해도 은퇴보다는 경제활동이 우선시되었다. 또한 1960년대에 퇴직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이 시기에는 한 직장에서 커리어를 쌓고 명예롭게 은퇴하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강조되었고, 은퇴란 어느 정도 예정된 생활사건이었다.

이러한 은퇴의 개념이 서서히 변화하여,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은퇴와 관련된 주제들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권문일, 1996). 우선 그 주된 이유는 전반적으로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이 향상되어 생활의 질을 추구하게 되었고, 수명의 연장과 함께 노인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은퇴 후의 늘어난 여생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는가가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고, 생활의 여유와 변화를 추구할만한 능력을 갖춘 개인들이 고정된 노동이나 직장 형태가 아닌 다양한 직업형태를 추구하거나 은퇴 후 재취업을 설계할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1980년대 후반부터 기업들은 주된 성장 저해요인으로 지적되던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을 감소시킴으로써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오병덕, 1996; 강상숙, 1999). 이러한 기업의 제도적 변화는 일반적인 평생직장 내지 예정된 은퇴연령이라는 개념을 변화시키는 데 공헌을 하였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은퇴라는 주제를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어느 정도의 탄력성과 자발성을 지니고 이루어지던 은퇴는 1998년 IMF라는 초유의 국가적 경제적 위기가 닥치면서 급격히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기업은 대대적으로 감원 및 해고조치를 단행하여 인원 감축을 통한 생존 전략을 모색하였으며, 이러한 구조조정은 지금까지도 이어져오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겪는 동안 은퇴는 예정된 시기가 아니라 강제성이나 암묵적인 강요에 뜻하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최근의 경제적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구직난이 가중되고, 능력을 갖춘 젊은 세대가 대거 노동시장 내외에 존재하게 됨으로

써 은퇴연령 이전의 근로자들마저도 조기퇴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¹⁾. 따라서 은퇴를 언제 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한 생활과제인 동시에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하게 되었다.

은퇴란 하나의 요인이 아닌 다양한 요인들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중다결정과정(김애순, 윤진, 1987)이므로 개인보다는 가족의 은퇴결정은 더욱 복잡해진다. 특히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이 보편화되면서 맞벌이 부부가계의 배경에서 은퇴결정을 연구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은퇴계획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서구에서조차 맞벌이 가계를 중심으로 한 은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아, 기혼 여성의 측면 내지 부부의 관점에서의 접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Szinovacz, 1987).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은퇴에 관한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으며, 주로 정년제도의 문제점과 실태를 다루었거나 은퇴에 대한 태도와 은퇴 후 적용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강문희, 1994; 윤상숙, 1999; 김은미, 2000; 민경진, 2002). 은퇴계획과 관련된 소수의 연구들조차 연구대상이 남성(이승아, 1998; 백해정, 2000)이어서,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가계 내의 남편과 부인 각 각을 대상으로, 본인이 예상하는 은퇴연령 및 본인의 은퇴연령과 배우자 간의 은퇴예상 연령의 차이를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무엇보다도 은퇴계획을 남편 뿐 아니라 부인, 즉 부부의 배경에서 이해하게 해주므로 가족의 은퇴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맞벌이 가계를 위한 노후대비 금융상품, 연금 및 보험 등과 관련된 기업에 유용할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정부정책을 세우는데 기초적인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은퇴의 정의 및 개념

흔히 은퇴는 ‘개인이 경제적 소득을 가져오는 어떤 일로부터의 완전한 퇴출’을 의미하지만, 노동시장에서의 다양한 변화를 고려할 때 은퇴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서구의 연구들을 중심으로 은퇴를 결정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응답자의 퇴직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는 것으로 ‘당신은 현재 은퇴를 하였습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긍정적인 응답을 하면 은퇴자로 규정한다(Parnes et al., 1974).

둘째, 경제활동 참가 여부에 의해 은퇴를 규정할 수 있다. 흔히 은퇴는 노동시장으로부터의 퇴출을 의미하며(Quinn & Burkhauser et al., 1998), 고용중단 상태에 있거나 ‘당신은 일을 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것을 완전히 그만두었습니까’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할 경우(Gundersen & Riddell, 1993) 은퇴자로

1) 예정된 은퇴연령이 변화한 것은 사회상을 반영한 신조어에서 잘 나타난다. 조기퇴직과 명예퇴직제도가 도입되어 일찍 은퇴를 선택한 이들은 ‘조기’, ‘명태’ 등으로 불리었다. 최근에는 직장에서의 퇴출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강제적이라는 의미에서 45년 정년을 뜻하는 ‘사오정’, 56세까지 직장이 있으면 도둑이라는 의미의 ‘오륙도’, 38세가 되면 직장에서 퇴출된다는 ‘삼팔선’, 그리고 이십대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 등이 회자되고 있다(조선일보, 2004).

파악한다.

셋째, 노동시간이나 임금수준이 일정수준 이하로 급격히 축소되는 시점(Burtless & Moffitt, 1984), 혹은 이전 직장과 비교하여 절대적 수준에서 근로시간 및 소득이 일정 수준 감소된 경우(Gustman & Steinmeier, 2000)를 은퇴로 간주한다

넷째, 주요 직업, 즉 일생 중 가장 오랫동안 근무한 직업의 중단을 은퇴로 정의한다. 따라서 나중에 다시 직업활동을 하게 되더라도 주된 직장을 그만두는 시점 이후를 은퇴로 규정한다(Morse et al., 1983; Quinn & Burkhauser et al., 1998).

다섯째, 은퇴급여 및 공적 연금 또는 기업 연금 등 연금을 최초로 수급하는 시점 이후를 은퇴로 규정한다(Fields & Mitchell, 1984; Gustman & Steinmeier, 2000). 최근에는 고용상태와 관계 없이 공적 연금이나 기업연금을 수급하는 것도 은퇴상태로 보는 경향이 있다(Quinn & Burkhauser et al., 1998).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은퇴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을 받고 있거나 또는 5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지난 1년간 전임으로 고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된다(장인협, 최성재, 1993).

또한 정선욱(1995)은 퇴직은 직업적인 위치로부터 비직업적인 지위로의 변화를 의미하며, 은퇴는 직업적인 위치로부터의 물러남 뿐 아니라 사회적인 활동으로부터의 분리도 함께 의미하고 있다고 구분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은퇴의 개념은 아직 확립되지 못한 채 퇴직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은퇴는 주관적인 판단에서부터 경제활동이나 노동시간 그리고 연금수급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리고 연구자의 연구목적이나 연구대상에 따라 다르게 선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선행연구의 고찰

노동경제학적 관점에 따르면 은퇴결정은 현재의 직업에 계속 머물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 또는 경제적 활동에 참가할 것인가 참가하지 않을 것인가와 같은 양자 선택과 관련되어 있다. 이 때 개인이 은퇴하기로 한다면 노동과 여가간의 상대적 시간배분에서 모든 시간을 여가에 배분하는 반면, 노동시간에는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 반면 가계내에서는 가사노동시간까지도 시간배분의 요소에 포함된다(Ehrenberg & Smith, 1994). 어떠한 시간배분의 선택을 하든지 간에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각 선택에 따른 예측된 효용 혹은 만족이다. 즉 은퇴의 결정은 특정 조건이나 자원의 제약 내에서 노동시간, 여가시간 및 가사노동시간의 가치를 고려하여 효용 또는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간배분을 선택함으로써 결정된다(Schultz, 1995). 이는 노동시간에 대한 수요가 이용 가능한 재정적 자원 뿐 아니라 노동과 여가에 대한 선호도와 같은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학적 관점에서 서구의 연구들은 개인의 연령, 교육수준, 직종 및 노동능력 등의 개인적 특성 이외에 은퇴시기와 사회보장혜택, 정년제도 및 연금 등의 조건 간의 관계에 대해 주목해왔다. 또한 개인이 갖고 있는 소득, 저축 및 자산 등의 경제적 조건과 자원이 은퇴결정의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전제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Hurd, 1990).

예를 들어 Hurd와 Boskin(1984)은 사회보장혜택으로 인해 노인남성의 경제활동이 감소되었음을 보여주었고, Hausman과 Wise(1985) 역시 유사한 결과를 발견하였다. Gruber와 Wise(2002)는 연금수급연령이 곧 표준은퇴연령으로 명명될 만큼 연금과 은퇴연령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연금수급개시 연령에 따라 은퇴율이 변화하였다고 하였다. Fields와 Mitchell(1984, 지은정, 2003 재인용)의 연구에 따르면 사적 연금이 공적 연금보다 은퇴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며, 특히 공적 연금의 역할과 비중이 낮은 국가일수록 사적 연금이 은퇴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alisch& Aman, 1998). 또한 연금 이외의 재원은 은퇴결정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Casey, 1997).

재정적 자원 이외에 건강상태 역시 은퇴결정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을 것으로 가정되었다. Hurd와 Boskin(1984)은 나쁜 건강이 조기 은퇴의 강력한 영향요인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Bazzoli(1985)는 건강보다 경제적 변수들이 은퇴결정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은퇴결정에 관한 연구들이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 여성의 은퇴결정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서구의 경우에도 몇몇 연구들만이 기혼 여성의 은퇴결정을 다루고 있는데, 이들은 여성의 은퇴시기가 건강, 가족에 대한 책임, 그리고 남편의 은퇴 등에 의해 남성에 비해 조기에 그리고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Clark et al, 1980; Szinovacz, 1987; Weaver, 1994).

또한 부부의 은퇴결정에 대한 연구 역시 남성의 은퇴와 관련된 연구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다. 최근의 몇몇 연구들이 이러한 연구상의 편향을 지적하면서 맞벌이 부부의 은퇴결정에 대해 연구를 시도하였다.

Hurd(1990)는 미국 부부에게서 공동 은퇴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Gustman과 Steinmeier(2004)는 이러한 공동 은퇴가 여가를 같이 즐기기 위해 더 젊은 연령의 부인이 은퇴연령을 조절하는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Blau(1997, 1998)는 부부의 은퇴결정에 있어서 한 배우자의 재정적 유인책이 다른 배우자의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소위 '파급효과'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Coile(1999) 역시 사회보장 제도에 의한 재정적 유인책에 의해 이러한 파급효과가 부부의 은퇴결정에서 나타났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O'rand 등(1992)은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부부가 은퇴에 이르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이들은 부부의 은퇴유형을 공동 은퇴형, 부인취업 남편 은퇴형, 남편취업 부인 은퇴형, 부부재취업형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유형에 자녀의 존재, 직장근속연수, 부부의 건강상태, 부부의 직업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고 제시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은퇴가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하고 연구주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은퇴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은퇴를 위한 정년제도의 유형이나 문제점 등에 관한 실태(김성순, 1984; 홍관간, 1988; 오병덕, 1996; 윤상숙, 1999; 민경진, 2002)와 함께 은퇴에 대한 태도, 스트레스나 은퇴 후 적응과 같은 사회적, 심리적 측면을 다룬 것이 많다(심은경, 1982; 최성재, 1989; 지연경, 1990; 강문희, 1994; 이승아, 1998; 성미애, 1999; 김문희, 2000).

소수의 연구들(권문일, 1996; 백해정, 2000; 지은정, 2003)은 남성의 은퇴결정을 다루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은퇴자체보다는 경제활동의 참여 혹은 지속여부등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남편의 소득 내지 가계의 경제적 여유 그리고 특히 결혼에 따른 여성적 책임, 즉 어린 자녀로 인한 자녀 양육 및 가사책임 등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의 특징을 결정짓는 중요한 영향요인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노미혜, 김영옥, 1993; 김순미, 김혜연, 1998; 김혜연, 2000).

III. 연구모델 및 연구방법

1. 연구모델

최근 노동과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직업경력이 중단되거나 퇴직을 하게 될 경우 재취업을 모색하고, 은퇴 후라도 경제활동의 욕구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은퇴의 정의를 '주요 직업을 그만두게 되는 상태'로, 은퇴예상 연령은 '주요 직업을 그만둘 것으로 예상하는 연령'의 의미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은퇴에 대한 한정적 정의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델을 구성하였다.

$Y1 = f$ (개인의 일반 및 심리적 특징변수, 가계관련변수, 직업관련변수)

$Y2 = f$ (개인의 일반 및 심리적 특징변수, 가계관련변수, 직업관련변수)

$Y3 = f$ (개인의 일반 및 심리적 특징변수, 가계관련변수, 직업관련변수)

여기에서 Y1은 맞벌이 가계 내 남편이 생각하는 본인의 은퇴예상연령, Y2는 맞벌이 가계 내 부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은퇴예상연령이다. 또한 Y3는 본인 및 배우자의 은퇴예상연령 간의 차로 남편 및 부인 각각이 예상하는 본인의 은퇴예상연령에서 배우자의 은퇴예상연령의 차이를 구한 것이다. 이 때 부부의 은퇴예상연령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남편의 은퇴예상연령이 더 높다는 가정 하에 남편의 은퇴예상연령에서 부인의 은퇴예상연령을 빼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와 같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 설명변수들은 선행연구결과들을 기초

로 크게 3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은퇴계획에 있어서 부부의 특징이 미치는 상호작용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본인과 배우자의 특징을 함께 고려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비교를 위해 각 모델에 동일한 독립변수들을 포함시켰다.

첫째, 맞벌이 가계내의 남편 및 부인 개인의 일반 및 심리적 특징 변수는 개인의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본인 및 배우자 각각의 연령, 교육년수, 건강에 대한 인식을, 심리적 특징으로는 부부관계 만족도,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에 대한 부부의 상의도로 구성하였다. 노동공급에 대한 인적 자본의 중요성을 논의 해온 경제학적 연구들(Schultz, 1961; Becker, 1975; Quinn et al., 1998)은 개인의 성, 연령, 교육수준 및 건강 등과 같은 노동 능력과 관련된 요인들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은퇴를 늦게 하며,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거나 건강이 좋은 개인은 노동 능력과 노동생산성이 우수하여 여가보다는 노동을 선택하게 되므로 은퇴를 늦추는 결정을 하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을 대상으로 한 백해정(2000), 성미애(2003) 등의 연구는 서구의 연구와 달리 은퇴와 관련된 태도 및 심리적 특징을 조사내용에서 다루고 있다. 이외에도 개인의 생활만족도, 은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은퇴에 대한 대비정도가 은퇴계획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지적은 계속 있어왔다(홍성희 외, 1998; 김혜연 외, 1999).

둘째, 가계관련변수는 자녀수, 막내자녀의 연령과 함께 가계부동산, 가계저축 및 가계지출 등 자녀와 함께 가계의 재정적 상태와 관련된 특징으로 구성하였다. 가정내 책임, 특히 어린 자녀의 존재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은퇴를 좌우하기 쉽다(김혜연, 2000; Hatch & Thompson, 1992). 은퇴와 관련된 가계의 재정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 수	정의 및 측정방법
종속변수	
은퇴예상연령	주요 직업을 그만둘 것으로 예상하는 연령
남편의 은퇴예상연령	남편본인의 은퇴예상연령(세)
부인의 은퇴예상연령	부인본인의 은퇴예상연령(세)
본인 및 배우자의 은퇴예상연령 간의 차	본인의 은퇴예상연령-배우자의 은퇴예상연령(남편의 연령-부인의 연령)(세)
설명변수	
개인의 일반 및 심리적 특징변수	
연령	본인 및 배우자의 연령(세)
교육수준	본인 및 배우자의 교육수준
건강에 대한 인식	본인 및 배우자의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1=매우 좋다, 3=보통, 5=매우 나쁘다
부부관계 만족도	본인의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 1=매우 만족, 3=보통, 5=매우 불만족
은퇴에 대한 태도	본인이 은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정도 1=매우 그렇다, 3=보통, 5=전혀 그렇지 않다
은퇴에 대한 상의도	배우자와 은퇴에 대해 의논하는 정도 1=매우 그렇다, 3=보통, 5=전혀 그렇지 않다
가계관련변수	
자녀수	가계내 자녀수(명)
막내자녀연령	가계내 막내자녀 연령(세)
가계부동산	주택시세 + 기타 보유한 부동산 자산(만원)
가계저축	가계저축 + 주식, 채권 등(만원)
가계지출비	한달 평균 생활비(만원)
직업관련변수	
직업유형	본인의 직업유형 1=고용직, 0=자영업 본인 및 배우자의 직업유형 1=고용직 + 고용직 2=고용직 + 자영업 3=자영업 + 자영업
직업소득	본인의 월평균 직업소득(보너스, 수당 등 포함) (만원)
직장에 대한 전망	본인의 현재 직장에 대한 전망 1=매우 좋다, 3=보통, 5=매우 좋지 않다

적 상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연구들은 연금제도와 은퇴시기간의 관계를 다루는

경우가 많다(Gruber & Wise, 1997; Kalisch & Aman, 1998). 반면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이나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집단	전체(N=517)	남편(N=229)	부인(N=288)
범주형 변수	빈도(%)	빈도(%)	빈도(%)
본인 연령 34세이하	143(27.7)	52(22.7)	91(31.6)
35세-44세	242(46.8)	113(49.3)	129(44.8)
45세이상	132(25.5)	64(28.0)	68(23.6)
본인 교육수준 고졸이하	141(27.3)	42(18.3)	99(34.4)
대졸이상	376(72.7)	187(81.7)	189(65.6)
본인 직업유형 자영업	374(72.3)	164(71.6)	210(72.9)
고용직	143(27.7)	65(28.4)	78(27.1)
부부 직업유형 고용직 +고용직	165(31.9)	66(28.8)	99(34.4)
고용직 +자영업	240(46.4)	108(47.2)	132(45.8)
자영업 + 자영업	112(21.7)	55(24.0)	57(19.8)
연속형 변수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자녀수(N=470)	1.7(0.6)	1.9(0.5)	1.8(0.6)
막내자녀연령(N=470)	9.6(6.9)	10.3(7.2)	7.9(7.0)
본인 연령	39(7.3)	40.5(7.6)	39.0(6.9)
본인 교육수준	14.9(2.4)	15.2(2.3)	14.5(2.4)
본인 건강에 대한 인식(1)*	3.6(0.7)	3.6(0.7)	3.6(0.7)
배우자 건강에 대한 인식(1)*	3.6(0.7)	3.5(0.7)	3.6(0.7)
부부관계만족도(1)*	2.4(0.7)	2.3(0.7)	2.4(0.7)
은퇴에 대한 태도(1)*	2.6(1.0)	2.5(1.0)	2.6(0.9)
은퇴에 대한 상의도(1)*	2.6(0.9)	2.7(0.9)	2.6(0.8)
가계부동산(단위 : 만원)	30421.8(32081.0)	29735.6(31146.4)	30967.4(32848.8)
가계저축(단위 : 만원)	2697.3(5633.1)	3099.9(6787.8)	2377.2(4496.2)
가계지출비(단위 : 만원)	239.0(243.3)	226.8(153.4)	248.7(295.9)
본인 직업소득(단위 : 만원)	321.1(367.9)	402.6(469.4)	256.3(242.4)
본인 직장전망에 대한 인식(1)*	2.8(0.8)	2.7(0.9)	2.9(0.7)
본인은퇴예상연령(세)	60.2(7.3)		
배우자은퇴예상연령(세)	57.4(8.9)		
본인 및 배우자은퇴예상연령차(세)	5.4(8.6)		

()안의 숫자는 문항수

* 5점 likert척도 1 : 매우 긍정, 3: 보통, 5 : 매우 부정

은퇴를 다룰 때 가계의 현재 재정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저축, 퇴직금, 자산 등의 변수들을 고려하기 쉽다. 개인의 경제적 자산은 은퇴계획에 융통성과 여유를 부여하며, 여성의 경우 은퇴를 늦추는 것은 주로 경제적 이유에서 기인하므로(Ehrenberg & Smith, 1994), 가계의 재정적 상태가 좋을수록 은퇴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

셋째, 직업관련변수는 맞벌이 부부의 직업유형(고용직 및 자영업), 본인의 직업소득, 직장전망인식과 함께 본인이 생각하는 배우자의 은퇴예상연령으로 구성하였다. 부부의 직업유형을 고용직과 자영업으로 구분한 것은 정년제도의 유무와 관련지은 것으로 빈번한 업종변경이 있지 않는 한 자영업이 은퇴예상연령이 더 높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직업소득이 높고 직장에 대한 전망이 좋다고 인식한다면 은퇴를 늦출 것이다. 배우자의 은퇴예상연령은 맞벌이 부부가계에서 부부의 상호작용에 의한 은퇴계획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변수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구체적인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은 (표1)과 같다.

2. 연구방법

1) 표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가계 내의 남편과 부인으로 연령,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표집하였다. 특히 남편과 부인의 직업에 있어서 자영업과 고용직의 분포를 고려하였는데, 이는 직업유형이 은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고용직의 경우 시간제 및 임시직 등을 제외하고 전일제만을 포함하였다. 5인의 전공교수에게 설문 도구의 타당성을 의뢰하였고, 2004년 8월 4일부터 8월 20일

까지의 예비조사를 거쳐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조사는 훈련된 면접원이 면접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2004년 8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이루어졌다. 총 6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534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517명(남편 229명, 부인 288명)을 최종 표본으로 선택하였다.

2)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평균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남편과 부인의 예상하는 은퇴예상연령 상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선택된 독립변수들이 각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에는 SAS Window Program을 이용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맞벌이 가계 내 남편과 부인은 전체적으로 평균 39세였으며, 35세-44세에 해당하는 집단의 비율이 높았다. 교육수준은 평균 14.9년이었는데, 남편의 대졸 이상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고용직에 비해 자영업의 비율이 높았는데, 응답한 남편과 부인가계에서 부부의 직업유형을 고려할 경우 그 비율은 대체로 균등하게 분포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조사대상자들은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의 현재 건강상태에 대해 대체로 평균 3.6점 정도의 응답을 보여 약간 좋지 않다는 인식을 보였다.

전체 517명 중 자녀를 갖지 않은 경우는 47명이었고 평균 막내자녀연령이 9.6세여서 초

등학교 저학년 수준이었다. 주택시세와 기타 보유한 부동산가치를 합친 가계부동산액은 평균 3억 정도였으나, 부인가계가 약간 더 높았다. 반면 전체적으로 가계저축과 가계지출비는 각각 평균 약 2700만원과 239만원으로 나타났다는데, 남편가계가 약간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조사대상자들은 은퇴에 대한 태도에서 전체적으로 평균 3점 이하의 응답을 보여 은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경향이였다. 부부관계만족도와 부부간에 은퇴에 대해 상의하는 정도 역시 전체적으로 약 2.5 점 정도의 수준이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조사대상자들이 예상하는 은퇴연령은 약 60세 정도여서 일반적인 직장에서의 정년을 은퇴시기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은퇴예상연령은 평균 57.4세였으며, 본인 및 배우자의 은퇴예상연령의 차는 평균 5세 정도였다.

2. 본인의 은퇴예상연령 및 본인과 배우자의 은퇴예상 연령 간의 차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맞벌이 가계 내 남

편과 부인이 각각 예상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은퇴연령과 그 은퇴예상 연령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3)과 같다.

(표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편은 본인의 은퇴연령을 평균 62세, 배우자는 평균 53세로 예상하고 있는 반면, 부인은 본인의 은퇴연령을 평균 58세, 배우자는 평균 61세로 예상하고 있었다. 은퇴예상연령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비교해보았을 때 남편은 최소 45세 최대 85세였던 반면, 부인은 최소 35세, 최대 80세로 나타나 부인의 은퇴예상 연령이 더 빠를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부의 은퇴예상 연령의 차이가 최소 -20세에서 최대 39세여서 부인이 남편보다 최대 20년까지 은퇴를 더 늦게 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로부터 남편이 부인보다 최대 39년까지 더 늦게 은퇴를 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남편은 부인보다 평균 9년 늦게, 부인은 남편이 평균 2년 늦게 은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며, 부인은 배우자, 즉 남편과 은퇴연령의 차가 더 적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남편과 부인의 인식은 모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본인의 은퇴예상연령 및 본인과 배우자의 은퇴예상 연령 간의 차

구분	남편(229)		부인(288)		t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최대)	평균 (표준편차)	최소(최대)	
은퇴예상연령 (본인)	62.2(5.6)	45(85)	58.6(8.0)	35(80)	-5.94***
은퇴예상연령 (배우자)	53.0(9.8)	31(85)	61.0(6.2)	35(80)	10.80***
은퇴예상연령차 (남편-부인)	9.2(9.1)	- 10(39)	2.4(6.7)	-20(28)	9.42***

*** p < .001

3. 본인의 은퇴예상연령 및 배우자의 은퇴예상연령 간의 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맞벌이 가계내 남편과 부인 각각이 예상하는 본인의 은퇴예상연령 및 본인과 배우자의

은퇴예상연령 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조사대상자 개인의 일반 및 심리적 특성변수, 가계관련변수 및 직업관련변수의 영향을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남편과 부인 본인의 은퇴예상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집단 분석값 독립변수	남편		부인	
	Parameter 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	Standard Error	Parameter 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	Standard Error
개인의 일반 및 심리적 특성변수				
본인연령	0.08(0.11)	0.09	0.15(0.13)+	0.11
배우자연령(34세이하)				
35-44세	-1.01(-0.09)	1.03	-0.61(-0.04)	1.24
45세 이상	0.20(0.01)	1.92	0.57(0.04)	1.87
본인교육년수	-2.23(-0.16)*	1.14	-1.15(-0.07)	1.04
배우자교육년수	-0.23(-0.09)	0.20	-0.01(-0.00)	0.23
본인건강인식	1.00(0.13)*	0.56	-0.12(-0.01)	0.69
배우자건강인식	0.14(0.02)	0.14	-0.42(-0.04)	0.71
부부관계만족도	-0.30(-0.04)	0.52	0.13(0.01)	0.64
은퇴에 대한 태도	0.95(0.17)***	0.35	0.42(0.05)	0.43
은퇴에 대한 상의도	1.03(0.17)**	0.40	0.67(0.07)+	0.50
가계관련변수				
가계부동산	-0.00(-0.04)	0.00	0.00(0.02)	0.00
가계저축	-0.00(-0.10)	0.00	-0.00(-0.08)+	0.00
가계지출	0.01(0.14)*	0.00	-0.01(-0.05)	0.00
직업관련변수				
직업유형(고용직 + 고용직)				
고용직 + 자영업	-0.55(-0.05)	0.80	1.38(0.09)+	0.90
자영업 + 자영업	1.40(0.11)	1.01	1.32(0.07)	1.20
직업소득	-0.00(-0.08)	0.00	-0.00(-0.01)	0.00
직장전망인식	0.12(0.02)	0.42	-1.59***(-0.15)	0.53
배우자은퇴예상연령	0.20(0.36)***	0.04	0.69(0.54)***	0.07
상수	43.03(0.00)***	5.40	14.04(0.00)*	6.78
F값	5.09***		10.23***	
Adj R2	0.24		0.37	

+P <.10, * P < .05, ** P < .01, *** P < .001

분석에 앞서 모든 변수들의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남편 및 부인의 연령과 각 배우자의 연령이 자녀수 및 막내자녀의 연령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이 부부의 관점에서 은퇴를 다루는 것이므로 부인의 경우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자녀특성 변수를 제외하고 다중회귀모델을 구성하였다.

(표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편이 예상하는 본인의 은퇴연령은 개인의 일반 및 심리적 특성변수 중에서는 본인의 교육년수, 본인의 건강에 대한 인식 및 은퇴에 대한 태도와 은퇴에 대한 부부의 상의도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남편의 은퇴 예상연령은 본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본인의 건강이 좋다고 인식할수록 빨랐다. 이러한 교육수준과 건강의 부적 영향력은 개인의 인적 자본의 중요성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결과(Becker, 1975; Schulz, 1995)와는 상반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이 좋은 남성이 은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조기 은퇴를 통해 생활의 여유를 누리려는 욕구를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은퇴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고 은퇴에 대해 부부가 상의하는 정도가 낮을수록 남편이 예상하는 은퇴연령이 증가하는 것은 은퇴에 대비한 심리적, 실제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계관련변수 중에서는 가계 지출이, 직업 관련 변수 중에서는 배우자의 은퇴예상연령이 본인의 은퇴예상연령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가계지출비가 높을수록, 그리고 배우자의 은퇴연령을 늦게 예상할수록 남편은 본인의 은퇴연령 역시 늦게 예상하였다. 이는 가계의 지출비가 많을 경우 은퇴를 늦춰 경제적 자원을 마련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맞벌이 가계에서 배우자의 은퇴연령과 본인의 은퇴연

령을 맞추려는 욕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부인이 예상하는 본인의 은퇴예상연령은 본인의 연령, 은퇴에 대한 부부의 상의도, 가계저축 및 부부의 직업유형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나, 그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본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은퇴에 대한 부부의 상의도가 낮을수록, 가계저축이 적을수록, 그리고 부부의 직업유형이 고용직 + 고용직 유형에 비해 고용직 + 자영업의 유형일 때 부인의 은퇴예상연령은 늦어졌다. 부인 본인의 은퇴예상연령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던 변수는 본인의 직장 전망에 대한 인식과 배우자의 은퇴예상연령이었다. 부인은 자신의 직장전망이 나쁘다고 인식할수록 본인의 은퇴연령이 빠른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배우자의 은퇴연령이 높다고 예상할수록 본인의 은퇴연령을 늦게 예상하여 배우자와의 은퇴연령을 비슷하게 예상하였다. 배우자의 은퇴예상연령은 남편과 부인 모두의 은퇴예상연령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갖는 변수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부인의 은퇴예상연령은 남편의 경우와 달리 부인의 인적 자본관련 변수나 가계관련변수와 유의미한 관계를 갖지 않는 경향을 보였으며, 직장관련변수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이 여성 자신의 인적 자본특성보다는 가정 내 책임이나 가계의 재정적 상태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김혜연, 2000)과 같이, 은퇴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의 능력이나 직업에 대한 소명감보다는 직장전망이나 배우자의 은퇴와 관련하여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 두 모델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모델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은 은퇴예상연령에 대해 남편의 경우 24%, 부인의 경우 37%

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본인과 배우자의 은퇴예상연령간의 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맞벌이 가계 내

남편과 부인이 각 각 예상하는 은퇴예상연령과 배우자의 은퇴예상연령간의 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 집단이 표본이 되므로 조사대상자의 성(sex)변수가 포함되었으며, 비

<표 5> 본인의 은퇴예상연령과 배우자의 은퇴예상연령간의 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값 독립변수	Parameter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	Standard Error
개인의 일반 및 심리적 특성변수		
본인의 성(여자)	3.61(0.21)***	0.86
본인연령	-0.05(-0.04)	0.09
배우자연령(34세이하)		
35-44세	0.05(0.00)	0.99
45세 이상	0.23(0.01)	1.62
본인교육년수	-0.98(-0.05)	0.92
배우자교육년수	-0.34(-0.09)*	0.19
본인건강인식	0.80(0.07)+	0.54
배우자건강인식	1.07(0.09)*	0.56
부부관계만족도	-0.19(-0.02)	0.51
은퇴에 대한 태도	0.05(0.01)	0.34
은퇴에 대한 상의도	0.16(0.02)	0.40
가계관련변수		
가계부동산	-0.00(-0.03)	0.00
가계저축	-0.00(-0.01)	0.00
가계지출	0.00(0.08)*	0.00
직업관련변수		
직업유형(고용직 + 고용직)		
고용직 + 자영업	-0.86(-0.05)	0.74
자영업 + 자영업	-0.61(-0.03)	0.96
직업소득	-0.00(-0.01)	0.00
직장전망인식	0.83(0.08)*	0.41
배우자은퇴예상연령	-0.42(-0.44)***	0.04
상수	26.29(0.00)***	5.21
F값	13.97***	
Adj R2	0.32	

+P < .10, * P < .05, ** P < .01, *** P < .001

교를 위해 동일한 독립변수들을 포함시켰다.

맞벌이 가계 내 남편과 부인이 예상하는 본인의 은퇴연령과 배우자의 은퇴연령의 차는 조사대상자의 성에 따라 유의한 영향을 받아 부인보다 남편이 자신의 배우자에 비해 은퇴 예상연령을 늦게 가정하여, 결과적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은퇴 연령 간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는 가계의 가장으로서 생계에 대한 책임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인과 배우자의 은퇴예상연령 간의 차이는 본인의 교육년수, 건강에 대한 인식보다는 배우자의 교육년수, 배우자의 건강에 대한 인식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의 교육년수가 높을수록 은퇴 예상연령 간의 차이는 적어졌고, 본인의 건강이나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인식할수록 은퇴예상연령 간의 차이는 증가하였다. 이것은 한 배우자의 노동생산성이나 노동력 유지가능성이 적을 때 다른 배우자가 보다 은퇴를 늦춰야 할 필요를 야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본인과 배우자의 은퇴예상연령 간의 차이는 가계의 재정적 자산보다는 가계지출비와 같은 직접적인 소비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아, 가계지출비가 많을수록 은퇴예상연령 간의 차이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관련 변수 중 본인과 배우자의 은퇴예상연령 간의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던 변수는 본인의 직장전망에 대한 인식과 배우자의 은퇴예상연령이었다. 본인의 직장전망이 좋지 않다고 인식할수록, 그리고 배우자의 은퇴예상연령이 높을수록 본인과 배우자의 은퇴예상연령 간의 차이는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 가계 내의 남편과 부인의 은퇴가 개인적 의사결정보다는 배우자의 인적 특성 및 직업 특성 나아가 은퇴시기 등을 고려한 상호작용적 결정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생활사건이었던 은퇴는 경제불안, 구조조정, 구직난과 평생직장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 전반적인 변화로 인해 개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해야 하는 생활설계의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은퇴는 직장 남성의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측면이 강했지만,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개인이 아닌 부부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맞벌이 가계내의 남편과 부인을 대상으로 각 각 본인이 예상하는 은퇴예상연령과 함께 배우자가 은퇴할 것으로 예상하는 연령을 조사하여 개인의 은퇴예상연령 및 배우자와 은퇴예상연령의 차이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맞벌이 가계 내 남편은 본인의 은퇴예상연령을 평균 62세, 배우자의 은퇴예상연령을 평균 53세로 예상하였으며, 부인은 본인의 은퇴예상연령을 평균 58세, 배우자의 은퇴예상연령을 평균 61세로 예상하고 있었다. 이러한 은퇴예상연령은 일반적으로 남편이 부인보다 늦게 은퇴할 것으로 예상하며, 보통 한 직장에서의 정년이 보통 55세 내외인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또한 남편보다는 부인이 배우자와의 은퇴예상연령의 차를 적게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맞벌이 가계 내 남편과 부인 각각의 본인 은퇴예상연령에 영향을 미쳤던 변수들은 매우 차이가 있었다. 남편의 경우에는 개인의 일반 및 심리적 특성변수, 가계관련변수 및 직장관련변수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교육년수와 건강 등의 인적 자본변수와 함께 은퇴에 대한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은퇴에 대한 부부의 상의도나 배우자의 은퇴예상연령 등 배우자와 관련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맞벌이 가계 내 부인의 본인 은퇴예상연령은 개인적인 특성변수나 가계관련변수 보다는 본인의 직장전망에 대한 인식과 배우자의 은퇴예상연령 등 직장과 관련된 변수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인적 자본 특성이나 직업에 대한 소명감보다는 매우 단순하게 직장자체의 전망이나 배우자의 은퇴시기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은퇴시기를 정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셋째, 맞벌이 가계 내 남편과 부인이 예상하는 본인의 은퇴예상연령 및 배우자의 은퇴예상연령간의 차는 성, 배우자 교육년수, 본인 건강에 대한 인식, 배우자건강에 대한 인식, 가계지출, 본인직장전망에 대한 인식 및 배우자 은퇴예상연령 등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인의 성과 배우자 은퇴예상연령은 은퇴예상연령간의 차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여서, 부인을 기준으로 할 때 남편이, 그리고 배우자의 은퇴예상연령이 빠를 때, 은퇴예상연령의 차는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은퇴예상연령은 일반적인 관념의 은퇴예상연령에서 크게 차이가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기 이후 봉급근로자의 경우 정년이 보장되지 못하며, 재취업 등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예상연령을 채우기 위해 더욱 구체적인 직업계획과 은퇴계획이 요구된다. 따라서 직장에서의 정년시기와 재취업의 가능성 등

여러 대안을 탐색하여 은퇴연령을 늦출 수 있는 방안이 실제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계획에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준비가 있어야 하겠으나,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기업, 민간단체와 정부기관의 장기적인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직장에서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연수, 적성검사를 통한 재취업 상담과 교육, 창업을 위한 금융지원 등은 은퇴를 연장시킬 수 있는 기초적인 도움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또한 조사대상자인 남편과 부인이 예상하는 본인의 은퇴예상연령과 배우자의 은퇴예상연령의 차이에 있어서 부인의 경우 그 차이가 적었다. 은퇴예상연령이란 실제적인 은퇴연령과는 차이가 있는, 즉 기대하는 은퇴연령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 가계에서 남편과 부인의 은퇴계획에 다른 요인이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책임 때문에 부인보다 더 늦게 은퇴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부인은 남편과 비슷한 시기에 은퇴를 하여 같이 노후를 즐기는 욕구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맞벌이 가계의 부부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와 심리적 측면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맞벌이 가계 내 남편 및 부인의 은퇴예상연령은 개인 및 가계의 재정적 상태와 관련된 변수들보다 배우자와의 상호작용이 포함된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도 맞벌이 가계의 은퇴는 개인이 아닌 부부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관련 변수들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남편의 경우 은퇴계획에 부인의 직업적 혜택과 유용성을 포함시키며, 부인과 보다 적극적으로 상의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부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직업적 능력과 경력의 개발을 검토하며, 부부의

은퇴계획에 참여하려는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이나 사회에서도 은퇴와 관련된 금융상품 및 관련제도들이 개인중심으로 정보제공과 상담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나, 부부 중심의 직업특성과 전망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인 상품개발과 제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맞벌이 가계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연구와 제도가 부족한 실정에서, 맞벌이 부부의 은퇴계획에 유용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력을 탐색한 기초연구의 성격을 갖고 있다. 서구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남편과 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게도 차이가 있었던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시사적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자료의 특성에 의해 포함시키지 못하였던 자녀관련 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본 연구에서는 조사에 어려움이 많아 시도하지 못하였으나, 맞벌이 가계의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함께 다양한 직업유형을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강문희(1994). 퇴직공무원의 사회적응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상공자원부와 농림수산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권문일(1996). 노인의 퇴직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 김성순(1984).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노인복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 김순미, 김혜연(1998). 성인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및 노동이동 의사의 상호관련성. 대한가정학회지, 36(1), 65-79.
- 5) 김애순, 윤진(1995). 은퇴이후의 사회심리적 영향 : 은퇴는 위기인가?. 조기퇴직과장, 노년기의 위기문제. 제 6회 노인복지 세미나. 서울 : 서울특별시, 한국노년학회.
- 6) 김은미(2000). 은퇴한 남자 어른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김환일(1994). 고령화사회에 있어서 명예퇴직제도의 도입방안. 인사관리연구. 16. 한국인사관리학회. 383-411.
- 8) 김혜연(2000). 기혼여성의 노동이동 가능성 : 노동이동의사와 영향요인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9(9), 143-157.
- 9) 김혜연, 김성희(1999). 노인의 부양유형 선호와 영향요인. 대한가정학회지, 37(2), 85-97.
- 10) 노미혜, 김영옥(1993). 한국여성의 취업경력.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 11) 민경진(2002). 중고령 근로자 퇴직에 관한 정책 방안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백근영(1994). 은퇴한 남자노인의 성격적응 특성에 따른 노후적응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백혜정(2000). 중년기 직장남성의 은퇴결정 및 노후재취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성미애(1999). 남성퇴직자의 생활태도 유형화 및 유형별 퇴직후 적응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5) 신화용(1996). 남편의 은퇴와 부부관계의 변화에 대한 탐색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4.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8.
- 16) 심은경(1982). 은퇴한 노인의 가정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7) 오병덕(1996). 명예퇴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

- 학원 석사학위논문.
- 18) 윤상숙(1999). 공무원의 명예퇴직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 이동금. 조기퇴직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 : 국내 진출 외국은행 사례 중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 이승아(1998). 중년기 직장 남성의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생활계획.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1) 장인협, 최성재(1993). 노인복지학.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 22) 정선옥(1995). 기업체의 퇴직준비프로그램이 퇴직후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3) 정정훈(1991). 조기퇴직제도의 도입 및 활용 방안.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4) 조선일보(2004). 작년 신조어 656개. 1월 9일. A9.
 - 25) 지연경(1990). 내외통제성 및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과 생활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6) 지은정(2003). 공무원 연금가입자의 퇴직 행태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제도적 규정 및 재정적 유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7) 최성재(1989). 퇴직 예정자의 퇴직에 대한 태도 및 퇴직 후 생활전망의 인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창간호.
 - 28) 한승훈(2000). 명예퇴직의사의 영향요인과 결과요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9) 호정화(1998). 교사의 일과 은퇴에 대한 태도 연구 :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0) 홍관간(1988). 우리나라 정년퇴직제도에 관한 연구 : 현행 정년퇴직제도와 근로자 의식 구조와의 관련분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1) 홍성희 외(1998). 노년기 생활설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0), 1-22.
 - 32) Atchley, R. C.(1992). Retire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Szinovacz, M. et al.(eds.). Families and Retirement. Newbury Park : Sage Pub., Inc. 145-158.
 - 33) Baker, M.(2002). The Retirement Behavior of Married Couples. J. of Human Resources. 37, 1, 1-34.
 - 34) Bazzoli, G. J.(1985). The Early Retirement Decision : New Empirical Evidence on the Influence of Health. J. of Human Resources. 10, 2, 214-234.
 - 35) Becker, G. S.(1975). Human Capital.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36) Blau, D. M.(1997). Social Security and the Labor Supply of Older Married Couples. Labor Economics, 4(4), 373-418.
 - 37) Blau, D. M.(1998). Labor Force Dynamics of Older Married Coupl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16(3), 595-629.
 - 38) Casey, B.(1997). Incentives and Disincentives to Early and Late Retirement. OECD Social Policy Division. Aging Working Paper.
 - 39) Clark, R.L. et al.(1980). Allocation of Time and Resources by Married Couples Approaching Retirement. Social Security Bulletin, 43, 3-17.
 - 40) Coile, Courtney(1999). Retirement Incentives and Couples' Retirement Decisions. NBER Monograph.
 - 41) Ehrenberg, R. Smith, R. S.(1994). Modern Labor Economics, Illinois : Scott, Foreman & Company.
 - 42) Gruber, J. & Wise, D. A.(1997). Social Security Programs and Retirement Around the World.

- NBER Working Paper 6134.
- 43) Gustman, A. L., Steinmeier, T. L. (2000). Retirement in Dual-Career Families : A Structural Model. *J. of Labor Economics*. 18, 3, 503-545.
- 44) Hausman, J. & Wise, D.(1985). Social Security, Health Status and Retirement. Pensions, Labor, and Individual Choice, Wise, D.(ed).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for the NBER.
- 45) Hatch, L. R., Thompson, A.(1992). Family Responsibilities and Women's Retirement. Szinovacz, M. et al.(eds.). *Families and Retirement*. Newbury Park : Sage Pub., Inc. 99-113.
- 46) Henretta, J. C. et al.(1992). Retirement Reason Versus Retirement Process : Examining the Reasons for Retirement Typology. *J. of Gerontology*. 47, 1, s1-s7.
- 47) Hurd, M. D.(1990). The Joint Retirement Decision of Husbands and Wives. Wise, D. A.(ed.). *Issues in the Economics of Aging*.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31-254.
- 48) Hurd, M. & Boskin, M.(1984). The Effect of Social Security on Retirement in the Early in 1970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46, Nov., 767-790.
- 49) Kalisch, D. W. & Aman, T.(1998). Retirement Income Systems : The Reform Process Across OECD Countries. OECD Social Policy Division, Aging Working Paper.
- 50) Morgan, L. A.(1992). Marital Status and Retirement Plans : Do Widowhood and Divorce Make a Difference? Szinovacz, M. et al.(eds.). *Families and Retirement*. Newbury Park : Sage Pub., Inc. 114-128.
- 51) O'Rand, A. M. et al.(1992). Family Pathways to Retirement. Szinovacz, M. et al.(eds.). *Families and Retirement*. Newbury Park : Sage Pub., Inc. 81-98.
- 52) Parnes, H. et al.(1974). The Pre-Retirement Years : Five Years in the Work Lives of Middle-Aged Men, Center For Human Resource Research. US : The Ohio State University.
- 53) Quinn, J. et al.(1998). Microeconomic Analysis of the Retirement Decision : United Stat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203.
- 54) Schulz, J.H.(1995). The Economics of Aging. Greenwood Publishing Group, Inc.
- 55) Stern, S.(1994). Ability, Promotion, and Optimal Retirement. *J. of Labor Economics*. 12, 1, 119-137.
- 56) Weaver,D.A.(1994). The Work and Retirement Decisions of Older Women : A Literature Review. ORS Working Paper Series. No. 61.
- 57) Szinovacz, M.(1987). Preferred Retirement Timing and Retirement Satisfaction in Women.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Vol. 24(4), 301-317.
- 58) Szinovacz, M. et al.(1992). Families and Retirement :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Szinovacz, M. et al.(eds.). *Families and Retirement*. Newbury Park : Sage Pub., Inc. 1-22.